

# 테니스 권순우 '우승 오랜만이네'

### 이탈리아 비엘라 챌린저 2차대회 무세티 2-0 꺾고 단식 정상에 챌린저 대회에서 3번째 우승

권순우(97위·당진시청·사진)가남자프로테니스(ATP) 비엘라 챌린저 2차 대회(총상금 13만 2280 유로) 단식 정상에 올랐다. 권순우는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비엘라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로렌초 무세티

(122위·이탈리아)를 2-0(6-2 6-3)으로 물리쳤다. 우승 상금 1만8290 유로(약 2400만원)를 받은 권순우는 랭킹 포인트 125점을 획득, 22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81위 안팎으로 순위가 오르게 됐다. 권순우가 챌린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9년 3월 일본 게이오 챌린저, 같은 해 5월 서울오픈 챌린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챌린저 대회는 투어보다 한 단계 낮은 대회로 주로 세계 랭킹 100위부터 300위 사이 선수들이 출전

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랭킹 54위 알레한드로 다비도비치 포키나(스페인)가 톱 시드를 받았고 권순우는 서베스천 코르다(88위·미국)에 이어 3번 시드로 나왔다. 권순우는 싱가포르로 이동해 ATP 투어 싱가포르 오픈(총상금 30만 달러)에 출전한다. 권순우의 단식 본선 1회전 상대는 타이션 콰이엇 카우스키(217위·미국)다. 권순우는 2020년 US오픈에서 콰이엇카우스키를 3-1(3-6 7-6<7-4> 6-1 6-2)로 물리친 바 있다. /연합뉴스



# 조코비치 역시 '호주오픈 사나이'

### 메드베데프 꺾고 3년 연속 우승 메이저대회 우승 18회로 늘려

노바크 조코비치가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8000만 호주달러·약 696억원) 남자 단식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조코비치는 21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다닐 메드베데프(4위·러시아)를 3-0(7-5 6-2 6-2)으로 물리쳤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이 대회 정상에 오른 조코비치는 자신의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 횟수도 18회로 늘렸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은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과 로저 페더러(5위·스위스)가 함께 보유한 20회다. 2018년 Wimbledon부터 이번 대회까지 최근 10차례 메이저 대회 가운데 조코비치가 6번 우승했다. 나달이 세 번, 도미니크 팀(3위·오스트리아)이 한 차례씩 왕좌에 올랐다. 2018년 이 대회 16강에서 정현(제네시스 후원)에게 패한 이후 호주오픈 21연승 행진을 이어간 조코비치는 우승 상금 275만 호주달러를 받았다. 한국 돈으로 23억 9000만원이다. 조코비치는 이번 우승으로 자신이 보유한 호주 오픈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9회로 늘렸다. 조코비치는 최근 호주오픈 20연승, 메드베데프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 20연승을 내달리며 이날 '정면충돌'했다. 그러나 둘의 팽팽한 힘겨루기



임신부 배에 사인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22일 호주오픈 우승 기념 사진 촬영 도중 임신부의 배에 사인을 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는 1세트까지였다. 조코비치가 먼저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3-0까지 앞서 나갔지만 메드베데프가 다시 연달아 3게임을 따내며 반격했다. 이후 조코비치의 6-5 리드까지 서로 서브 게임을 지키며 맞섰고, 이어진 메드베데프의 서브 게

# 만 36세 원성진 13연승...바둑리그 최고령 다승왕

2000년대 초반 한국 바둑계에서 '송아지 삼총사' 중 한 명으로 주목받았던 원성진(35·셀트리온·사진) 9단이 KB 바둑리그 사상 최고령 다승왕에 올랐다. 원성진은 지난 20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20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 컴퓨터스타이제과의 대결 1국에 출전해 나현 9단에게 191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원성진은 2020-2021시즌 개막전부터 파죽의 13연승을 달리며 단독 다승왕을 확정했다. 2004년 출범한 바둑리그에서 원성진이 다승왕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1985년생으로 만 35세인 베테랑 원성진은 바둑리그 사상 최고령 다승왕의 기록도 세웠다. 종전 최고령 다승왕은 2006시즌 이창호 9단이 세운 만 31세다. 원성진은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물가정보와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전승에 도전한다. 바둑리그가 더블리그로 진행된 2006년 이후 전승을 달성한 선수는 지난 시즌 16연승을 기록한 신진서 9단이 유일하다. 원성진의 깜짝 활약과 1인자 신진서의 '원투펀



치'를 앞세워 리그 1위를 달리는 셀트리온은 27일 최종전에서 한국물가정보를 상대로 우승에 도전한다. 나란히 7승 6패를 기록해 3~5위에 올라있는 포스케미칼과 수려한합천, 바둑메카 의정부는 최종 라운드에서 포스트시즌 진출팀을 가리게 됐다. 8개 팀이 참가한 2020-2021 바둑리그는 4위가 지 포스트시즌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 광주여대 양궁부 '우수단체상'

### 김성은 감독 양궁협회 우수지도자상...이선재 총장 공로상 받아

광주여대양궁부가 대한양궁협회 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 김성은 감독은 우수지도자상,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공로상을 받았다. 광주시양궁협회는 "최근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대한양궁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 시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여대는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열린 제38회 대통령기전국 남녀양궁대회에서 여대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안산은 개인종합 1위를 포함해 4관왕을 차지했다. 광주여대는 이어 7월 예전 진호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제 폐기점 제37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여대 양궁부를 전국 최강으로 끌어올린 김성은 감독은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김 감독은 기보배, 최미선, 안산을 스타로 키워냈다. 맞춤형 훈련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선수 역량을 극대화하



대한양궁협회 공로패를 수상한 이선재(가운데) 광주여대 총장과 우수지도자상을 받은 김성은(오른쪽) 감독, 우수단체로 선정된 양궁부 주장 이세현 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광주여대 양궁선수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등 국위선양에 기여했다. 2014년 한국대학양궁회장을 맡은 이 총장은 지난해까지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를 주관하며 대학스포츠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대, 난적 중앙대·고려대 연파 16강 진출

### 춘계대학축구연맹전 1패 뒤 2승 조선대도 16강에...연세대와 격돌

광주대가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난적' 중앙대와 고려대를 격파하고 16강에 진출했다. 대학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통영 산양스포츠파크와 평림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 '한산대첩배'와 '통영배' 2개 리그로 나눠 열리고 있다. 리그별 40개, 41개 팀이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쳐 2개의 우승팀을 가리게 되며 광주대는 한산대첩배 리그에서 경쟁하고 있다. 광주대는 목포과학대와의 세 번째 경기에서 1-2로 졌지만 앞서 중앙대와 고려대를 각각 3-1, 2-0으로 이기며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광주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송실대와 16강 경기를 치른다. 역시 2승 1패의 전적으로 16강에 진출한 조선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연세대와 8강을 다툰다.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 출전한 광주대 축구부 선수들. <광주대 제공> 2승 1무를 기록한 동신대는 추첨 결과 16강 대 오전 10시 경희대와 만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션 파서블
2관	미션 파서블
3관	빛과 철, 더블패터, 새해전야
4관	소울
5관	소울, 긴이역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6관	미션 파서블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7관	세네케를
8관	세네케를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비엔나의 봄**  
일시 : 2021. 02. 24.(수) 11: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